

서문(“책을 시작하며”)에서 저자는 몇 가지 용어정리와 함께 책을 시작한다.

### 1. 조우

- ‘조우’(遭遇)는 우연한 만남을 의미하지만, 저자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“독특한 관계” 형성 그리고 “서로의 삶에 개입하며 강하게 연결됨”(7)에 더 큰 의의를 둔다.
- 보다 넓은 의미에서 ‘조우’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, 역사적 사건 또는 이론, 사상과의 만남을 포함한다. 예) 가야트리 스피박(Spivak)과의 ‘조우’, 코스모폴리터니즘과의 ‘조우’
- 가야트리 스피박(Spivak). 자크 데리다(Jacques Derida)의 『그라마톨로지』(1967)를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학계에 알려진 “탈식민주의 담론”의 대가.

### 2. 행성적 사랑

- 스피박에 따르면, “이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담론”은 한 마디로 “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”(mind-changing love)으로 ‘행성적 사랑’(planetary love)을 말한다.
- 저자(강남순)는 스피박의 사상을 가지고 발제하는 학술회의에 초대강사로 참여. ‘행성적 사랑’ 개념과 관련해 “코스모폴리턴 신학을 향하여”이라는 논문을 발표. 나중에 이것을 발전시켜 『코스모폴리턴 신학』(*Cosmopolitan Theology: Reconstituting Planetary Hospitality, Neighbor-Love, and Solidarity in an Uneven World*, 2013)을 출간하고 이를 간추려 쉽게 풀어 쓴 책이 『코스모폴리터니즘과 종교』다.

3. 이외에도 ‘코스모폴리터니즘’ 등 관련된 용어와 개념이 여럿 등장하지만,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.

## 제 1 장: 21 세기, 코스모폴리터니즘의 귀환

### A. 주제(Thesis)

- 코스모폴리턴(cosmopolitan)이란 세계를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. ‘세계 시민’으로서 모든 개인과 국가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.
- 정치적, 도덕적 가치로서의 코스모폴리터니즘 담론은 급변하는 세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.

### B. 문제점/질문(Problems/questions)

- 세계화(globalization)와 함께 등장한 다문화주의, 이주 문제 등 오늘날 세계가 상호 연관된 공동 운명체적 삶의 자리로 들어섰다. 이로부터 발생하는 ‘인권이나 세계 정의 문제가 어떻게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조명되어야 하는가?’라는 질문이 제기(24).
- ‘세계시민’ 혹은 ‘인류 가족’이라는 의식이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자리 잡을 때,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?(17)
- 철학, 정치과학, 사회과학 분야에서와는 달리 종교 분야에서는 이런 코스모폴리터니즘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거의 없었다(25).

### C. 논점(Argumentation)

#### 1. ‘세계시민’의 등장: 국가 시민의 경계를 넘어서

- ‘세계시민’(global citizen) 의식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각종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.  
예) Bill and Melindar Foundation

- 공동 운명체 의식=> 일개 국민에서 세계 시민으로. “어느 나라 국민이든, 어떤 종교를 믿든, 어떤 인종/민족에 속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인간은 단지 ‘생명’을 지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.”(18)
- ‘지구’(globe)라는 용어는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다양성을 단일화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반면, ‘행성’(planet)은 개별적인 생명체 고유의 ‘다름’(alterity)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‘행성’이 보다 바람직한 단어 선택(스피박).

## 2. 코스모폴리터니즘의 귀환

- 신학적 담론의 당위성 문제. ‘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’는 인식의 확산. Cf. “It’s a small world after all” (Disney Land Paris).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.
-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도덕적, 규범적 방침이 요구됨
  - 1) 인간이 갖는 권리의 ‘개별성’(singularity). 정치 집단의 부속품이 아닌 ‘개별 인간’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을 권리.
  - 2) 인간이 갖는 책임의 ‘동등성’. ‘개별인들에 대한 [우리의] 책임’ 의식으로 누구에게나 국가, 종교, 인종, 성별과 상관없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.
  - 3) 코스모폴리터니즘의 보편성. ‘우주 시민’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. “백인-남성-중산층” 중심의 ‘근대 보편주의’와 차별화. 또한 종교적 배타성을 정면부인. ‘이웃 사랑’(막 12:31), ‘원수 사랑’(마 5:44), ‘나는 나다’(출 3:13-14).
- ‘코스모폴리터니즘의 귀환’ => 새로운 개념이 아닌, 옛 사상의 부활. “당신의 어디서 왔는가?”에 대한 디오게네스이 대답: “나는 우주(cosmos)의 시민이다.”

## 3. 코스모폴리터니즘: 오해와 이해

- 용어가 갖는 의미의 다양성에 주의. 예) 페미니즘, 포스트모더니즘, 포스트콜로니얼리즘
- 대중적 이해(오해). 「코스모폴리턴」(Cosmopolitan)이라는 여성 패션 잡지. 이 잡지는 자본(상업)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해 새로운 세계(유행)를 제시함=> “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코스모폴리터니즘”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반대편에 서 있다(27). Q: 예수의 가치관과 상업화된 교회 비교
- “코스모폴리터니즘은 무조건적 환대, 세계적 연대와 책임, 타자에 대한 환영, 우주적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다.”(29)

## 4. 코스모폴리터니즘의 주제들

1. 정체성의 정치학(politics of identity). 부정적 의미에서 ‘코스모폴리턴’은 ‘강요된 정체성’의 의미를 가진다. 긍정적 의미에서 ‘코스모폴리턴’은 “국소적인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사는 이들”을 일컫는 말이다(30).
2. ‘친구/이웃’에 대한 근원적 물음
  - 누가 ‘친구’이고 누가 ‘적’인가? 정치적 의미에서 ‘친구’와 ‘적’을 규정=> 이에 따라 타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, 연대의 범주도 이분화된다.
  - 코스모폴리터니즘은 “나와 동질적인 조건을 지닌 사람들만” 친구/이웃으로 제한하지 않고, 상이한 조건들 속에 있는 사람들도 “우주에 속한 시민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동질성”에 근거하여 이웃으로 간주한다.(31) => ‘동료 시민’, 친구/이웃 개념(인식)의 확장. 예) ‘국경 없는 의사회’(Doctors Without Borders)
3. 타자에 대한 책임감, 환대 및 정의와 관련된 주제들의 확장=> 정의, 환대, 연민, 연대의 범주가 더 이상 ‘동료’, ‘친구’, ‘이웃’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종교와 국적을 가진 이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.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“사회적·국가적·공적 문제”다.(33)

5. 이론-실천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: 이론은 실천이다
  - ‘이론’과 ‘실천’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갖는 위험성=> 두 개를 별개로 본다. 예) 냉장고 만드는 것(이론)과 사용하는 것(실천)
  - 이론이 ‘무엇’이 문제고 ‘왜’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다면, 실천은 ‘어떻게’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밝힌다.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=> 미셸 푸코, “이론은 실천이다”.

#### D. 평가(Critique).

- 저자는 기존의 신학적 틀을 벗어나 보편적 개념(cosmopolitanism)과 비종교적 용어(planetary love)를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다. 다문화, 다종교 세계를 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‘신학 다시 하기’의 모범이다.
- ‘좋은 이론’은 세계에 정의, 평등, 평화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고, ‘나쁜 이론’은 “정치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무수한 타자들을 양산해내고..., 그들에 대한 배타와 정죄를 당연하게 만드는 이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”(40). 마찬가지로 논리에서 ‘좋은 신학’과 ‘나쁜 신학’은 이것이 세상(이웃과 적)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 그 진정성과 가치가 드러난다.
- 저자는 책에서 ‘탈식민주의’(8, 34)와 ‘포스트콜로니얼리즘’(26, 38)이란 용어를 함께 쓰고 있다. 번역상의 통일성 혹은 최소한 괄호 안에 영어표기(postcolonial, postcolonialism)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‘조심스럽게’ 내놓는다.

#### 생각해 보기

1. 종교의 궁극적 가치는 ‘나는 누구인가?’(정체성) ‘어떻게 살아야 할까?’(생활규범)를 가르치는데 있다. 코스모폴리터니즘이 제시하는 정체성과 생활규범은 무엇이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?
2. 코스모폴리터니즘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보라.
3. 이론 없는 실천은 ‘왜’와 ‘무엇’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며,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이론은 ‘어떻게’라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정성(?)을 상실한다(41). 예를 들어 보라.